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6(4): 159~174, 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30 · 40 · 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

강 유 진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Korean Adults' Planning for Old Age

Kang, Yoo Jin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Gunpo,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dult perceptions of old age planning and the factors that explain the degree of their planning for the future. The data came from 478 adults between the age of 30 and 59 living in Gunpo city.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participants are well aware of the need for old age planning, and that the majority of them think they are responsible for their old age security. Nevertheless they are not preparing for later life very much. Second, they are doing their best planning for their later lives in the area of social activities. The degree of participants' preparation varies depending on their age and socioeconomic factors. Finally, participants who strongly recognize their parents' role are also more likely to plan for the fut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ducational programs and systems for pre-instruction about various plans for old age be developed for even younger people.

Key words: planning for old age, younger generation, pre-instructions for old age

I. 문제제기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꾸준한 상승세로 인하여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70년도에 전체 인구의 3.3%에 불과하였으나, 30년이 지난 2000년에는 7.2%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도 현재에는 총인구 중 9.1%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3%에 이르러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통계청 2005). 그러나 서구 선진국과 달리 개

이 논문은 2005학년도 한세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일: 2005년 10월 20일 채택일: 2005년 12월 7일
Corresponding Author: Kang, Yoo Jin Tel: 82-31-450-5210
E-mail: yoojin528@hansei.ac.kr

인과 사회 모두 연장된 노년기를 대비한 충분한 준비와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 사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은퇴 후 준비'가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주요 10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5).

이처럼 우리 사회 개인들의 노후준비행동이 소극적인 이유는 이제까지 사회가 노인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한국형 복지체계'에 의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노후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서구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사회의 경우 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지원체계는 매우 미흡하며,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족 및 친지의 비공식적 부양체계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모두 노후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겠다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부양을 담당한 전통적 가족부양체계가 외적, 내적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다(김두섭 등 2000; 장경섭 2001). 첫째, 저출산 현상에 수반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미래 노인세대가 노후에 기혼자녀로부터 동거부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크게 감소시키는 가족외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더욱 중요한 점은 가족부양체계의 내적 변화로서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노후의 부양책임 의식에서의 변화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청·장년층 뿐 아니라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노후준비수단의 중요한 축인 '가족 중심형 노인복지체계'가 큰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노인세대를 부양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러한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현재의 성인세대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마땅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의 변화는, 개인과 사회가 앞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준비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한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뿐 아니라 노년기 이전의 더 넓은 연령 대까지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30,40,50대를 포함한 폭넓은 성인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이 노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후준비를 얼마큼 실행에 옮기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노인세대 뿐 아니라 미래 노인세대를 포함하여 노후준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인층 혹은 40,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후준비실태 및 의식을 파악하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 대부분이다(김기태 2004; 김성숙·박운아 1992; 김윤정·최윤희 2004; 김인숙 2004; 배계희 1989; 성말순 2005; 송석전 2004; 양순미·홍숙자 2002; 이은경 2002; 장민자 2003; 전진우 2002; 최은정 2004). 이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 사회 중·장년층은 노후에 대한 준비의식과 관심도는 높으나, 실제 준비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한다. 또한 노후준비의식과 준비행동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상황 및 노후부양관, 결혼만족도 등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김인숙 2004; 신은식 2002) 가족 및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노년기 고독감과 소외감, 여가생활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점차 노후준비의 영역을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까지 확대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노후준비 영역을 다양한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각각의 노후생활 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진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주로 노후준비의 다양한 영역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영역별로 어떤 요인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영역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영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개인의 노후준비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노후준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느 한 가지 노후준비영역만 따로 구분하여 관련요인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후준비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성인들의 노후준비행동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30,40,5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전반적 견해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 등 다차원적 노후준비영역을 동시에 고려할 때 이들의 노후준비패턴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다양한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포시 거주 30,40,50대 성인남녀의 노후준비에 관한 전반적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노후준비영역을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영역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개별적 영역별로 노후준비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본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노후준비정도가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련특성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노후준비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들을 1)세 영역 모두의 노후준비정도가 높은 집단, 2)세 영역 중 두 가지 영역의 노후준비정도가 높은 집단, 3)세 영역 중 한 가지 영역의 노후준비도가 높은 집단, 4)세 영역 모두의 노후준비도가 낮은 집단 등 네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속한 성인들의 특성이 개인특성과 가족특성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30,40,50대 성인남녀의 노후준비의식을 파악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미래노년세대로서 성인들이 효과적인 노후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정책제공과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후준비영역

1) 경제적 준비

우리나라 노인문제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이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일관되게 알려져 왔다. 통계청의 1998년과 2002년도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02). 노인의 경제적 궁핍은 비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료관리 부족, 영양섭취 미흡, 여가생활 불능, 자존감 하락 등 생활의 다른 영역들에까지 부정적 결과를 파생시킨다(이인수 2002). 따라서 노후에 경제력을 갖춘다면 건강을 유지하고 적극적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심리적, 정서적 만족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의 질을 높인다는 점을(신은식 2002) 감안할 때, 노후의 경제적 준비는 향후 노인복지의 핵심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노년기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가? 노년기 예상 생활자금 규모를 동갑내기 부부가 60세에 은퇴하고 80세까지 20년 동안 함께 생존할 경우를 가정할 때, 여유비용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0세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액 수준으로 생활한다면 예상 노년 생활 자금은 약 2억 3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리고 60세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액을 전제로 월 50만원의 여유비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노인철 2004).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서구 선진국처럼 사회적 차원에서 노후경제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 및 노인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에서도 노년기를 위한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노년기에는 마땅한 소득원이 없이 이제까지 축적한 재산이나 저축을 처분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이나 사회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Clark &

Spengler 1980).

더욱이 가족이 노부모의 경제적 생활을 보조하고 책임지는 부양책임의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노후 경제생활보장 책임의식'을 묻는 최근 통계청의 조사결과, 가족이 노인의 경제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반대로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가족의 노후부양의식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계획적이고 자발적인 노후생계대책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Rice와 Tucker(황승일 2000에서 재인용)는 노년기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성인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한다면, 복리의 효과 면세의 혜택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는 무엇보다 노년기 이전인 성인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우리 사회 성인들의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관심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신체적 준비

신체적 건강은 노년기에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의 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노년기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일 뿐 아니라,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는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사회적 활동 범위를 축소시켜서 고독감과 무력감의 원인이 되는 등, 노년기 삶의 여러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명숙 2002). 이 때문에 Rowe와 Kahn(최혜경 · 김유경 2001에서 재인용)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질병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적 요소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년기 적응과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문제가 노인의 거주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송경숙 1991; 이우복 1993; 홍숙자 1990; 홍성희 1998).

이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건강문제가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후 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노후대책을 세울 때 건강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고한다(김미경 1992; 배계희 1988). 또한 학력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노후에 신체적 건강을 대비하는 노력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1996; 홍숙자 1999).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 보장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노후 건강관리를 위한 개인적 준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노년기에 진입하기 이전인 중년기부터 신체적 노화를 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년기는 성인 전반기부터 누적된 경험의 영향으로 노년기까지 개인간의 건강 수준 편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시기이기도 하다(차승은 · 한경혜 2003). 즉,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양식이 변화함과 더불어 신체적 노화현상은 개인의 노력과 관심 여하에 따라 그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는 반면, 노화를 더욱 촉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 노년을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인 성인기부터 꾸준히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적 관심이 매우 요구된다.

3) 사회적 준비

인생의 다른 시기와 달리 노년기는 사회 속에서 삶의 구조화할 만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살아가는 동기를 찾고 사회 속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 점을 두고 노년기 개인은 '역할이 없는 역할'(roleless role)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최신덕 · 김모란 1998).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들의 이러한 '역할이 없는 역할'의 시기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 일상의 여가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가활동은 노인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성을 유지하고 우정을 나눔으로써 노화를 지연시키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 즉, 여가활동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사회적응, 사회적 공헌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개인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도울 뿐 아니라, 자기를 표현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자기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신은식 2002).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년기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에서도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 비해 사회적 노후 준비 영역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노년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로 인해, 가족을 정의하는 심리상태가 점차 부부 상호간, 자녀 중심적으로 변화하면서 노인은 가족의 정서적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1998)에 의하면 가족 관계 안에서 소외감, 고독감을 자주 느낀다는 노인이 연구대상 노인의 42.1%를 차지하였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심리적 위축감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춘식 2001). 노년기 정서적 고독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이외의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는 향후 중요한 노인문제가 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년기를 어떻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인생계획이 노년기 이전부터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노후준비와 관련된 요인

1) 개인특성요인

노후준비관련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연령, 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노후 준비행동 간의 관련성을 많이 언급해 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노후대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1996; 이행숙 1996; 최점수 1994). 즉, 노후의 생활계획을 은퇴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와서야 보다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것이다(장인협·최성재 1994).

그러나 이러한 연령의 영향력은 노후준비의 각 영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신체적, 정서적 노후준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잘 되고 있으나, 경제적 준비의 경우 40대보다 20, 30대의 젊은층이 오히려 노후대비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김미경 1992; 최성재 1992). 이것은 아무래도 40대 중년층은 자녀교육의 지출이 많고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맡은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노후대비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의 생활계획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1996; 배계희 1988; 송명숙 2002; 이행숙 1996; 홍숙자 2000). 많은 연구들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경제적·주거 영역 등 노후 준비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셋째, 건강상태와 노후준비와의 관련성을 살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임경자 2002; 임희정 2002).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규칙적 식생활, 충분한 영양섭취 및 적당한 운동 등 적극적으로 신체적 관리를 할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다 활발히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 및 참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준비에서의 성별차이는 노후준비영역에 따라 상이하였다. 즉,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건강관리에 보다 적극적이며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전·박혜인 1992; 임경자 2002).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서적 노후준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 된다(황승일 2000).

다섯째, 경제상태는 미국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연구에서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설명하

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지적되었다(배문조 · 전귀연 2004; 최혜지 · 이영분 2005). 경제상태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은 연구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가족의 순자산액이 많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은퇴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더 많이 하며(최혜지 · 이영분 2005),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노후를 위한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준비도가 높다는 연구(김성희 1996; 송명숙 2002)들이 있는 반면, 문숙재와 김순미(1997)의 연구는 이와 대조적으로 가계의 금융자산액과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액이 적을수록 노후 재정적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로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뿐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준비도가 높다고 보고한다(김성희 199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30,40,50대 성인들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특성변수로서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성별, 경제상태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가족특성 요인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여전히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가치이며, 핵심적인 삶의 원리가 아닐 수 없다(장경섭 2001). 특히, 30,40,50대 성인들은 가족 안에서 노부모와 자녀세대 등 두 세대 모두에게 정서적 · 물질적 자원을 제공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책임감이 크다(김명자 1998; Putney & Bengtson 2001).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 가족의 외적, 내적 변화들로 인하여 "전통적 가족문화와 현대적 가족문화의 중간에 낀 샌드위치 세대"(장경섭 2001)로 표현되는 현재 성인과 중년세대는 가족 내에서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독립적인 노년기를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따라서 가족 내의 부양경험, 부양가치관 등의 가족관련 요인들이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가족가치관 및 가족경험과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몇몇 연구들에서 밝혀진 노후준비와 관련된 가족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자녀와 노부모세대와의 세대관계와 노후준비행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섭 등(2000)은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세대관계를 근접성, 지원, 규범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한 후, 세대관계 유형이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및 실제 노후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부모와의 세대관계 형태에 따라 중년층 자신의 노후준비행동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즉, 근접성, 지원관계, 노부모부양관 모두에서 전통적인 세대관계를 유지하는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 독립적인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인 반면,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원기능을 유지하더라도 부양관이 약할 경우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독립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간 결혼만족도 역시 노후준비정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고 배우자의 노후준비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노후준비를 더욱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양책임을 자식에게 돌리느냐, 혹은 자신에게 돌리느냐에 따라 노후준비행동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에 결혼한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집단의 경우 신체적 · 정서적 준비도가 높았으며, 별거를 원하는 집단은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높았다. 또한 노후부양책임이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노인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배계희 1988; 신은식 2002; 황승일 2000).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노부모부양제공정도, 결혼만족도, 부양책임의식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30 · 40 · 50대 성인들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제공 못지않게 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역할을 활발히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에서 부모로서의 역할몰입정도가 중년기 성인들의 노후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족관련요인들에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30,40,5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47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 Sel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haracteristic		N(%)
Sex	Male	168(35.1)
	Female	310(64.9)
Age	30 ~ 39	155(32.4)
	40 ~ 49	232(48.5)
	50 or over	91(19.0)
Subjective health	Very bad	4(0.8)
	Somewhat bad	36(7.5)
	Not bad	204(42.7)
	Somewhat good	172(36.0)
	very good	56(11.7)
Education	None	1(0.2)
	Primary school	4(0.8)
	Middle school	20(4.2)
	High school	173(36.2)
	University	276(57.7)
Subjective economy level	Very poor	29(6.1)
	Somewhat poor	117(24.5)
	Good	179(37.5)
	Somewhat good	141(29.5)
	Very good	10(2.1)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노후준비 영역을 경제적 준비, 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노후준비척도는 노후준비 관련 선행연구들(배계희 1988; 송명숙 2002; 임희정 2002)의 문항을 참고로 하여 각 영역별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응답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노후준비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87, 사회적 노후 준비 척도의 Cronbach α=.84이고, 신체적 노후 준비 척도의 Cronbach α=.79이었다.

2) 독립변수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개인관련특성과 가족특성 변수들이다.

개인특성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가 포함되었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연속변수로써 다항로짓분석에 사용되었다. 건강상태는 단일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경제상태 역시 단일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관련변수는 자기부양의식, 노부모부양제공정도, 부모역할수행, 결혼만족도 등의 요인들이 포함되었다. 자기부양의식은 노후에 자식에게 부양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후, 자식과 동/별거하여 부양받겠다라는 응답은 0,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응답은 1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노부모부양제공정도는 노부모부양영역을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부양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부양영역의 경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전혀없음', '별로없음', '가끔있음', '자주있음' 등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부모에 대한 부양제공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역할수행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수행하는 부모역할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끼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지금껏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른 부모들이 하는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등 네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를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는 정현숙(2001)의 "한국형 결혼만족도"를 사용한 김윤정과 최윤희(2004)의 결혼만족도척도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만족도 척도의 Cronbach α=.89이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와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노후준비영역의 전반적 경향과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유형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둘째,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노후준비영역 각각에서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노후준비가 적극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행동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노후준비영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을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집단의 특성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범주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노후준비에 대한 전반적 견해

30, 40, 50대 기혼남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노후준비책임의식 등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노후의 '건강문제'와 '경제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문제가 전체의 4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제문제는 그 다음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44.5%가 응답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에게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을 물어보았을 때 '40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9.6%), 그 다음으로 '30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32.9%). 이처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72.5%)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으로 30대 혹은 40대를 지목한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노인 뿐 아니라 노년기 이전세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노후부양책임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자기부양의식'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후부양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73.8%) '노인 스스로'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사회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18.4%), '가족/자녀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에 불과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자식에게 부양받을 의사를 물어보았을 때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을 생각이 없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64.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식과 동거하면서 부양을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2.6%에 불과하였다.

또한 노후생활비의 마련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이상이(66.5%)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사회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32.3%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일차적 책임 이외에도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자녀'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3%로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30,40,50대 성인들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작 연령도 성인기 초반인 30,4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노후준비의 주체에 있어서도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 아닌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자기부양의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었다.

Table 2. Perceived perceptions for the old age

Variables		N(%)
The biggest threat to the old age	economy	209(44.5)
	health	233(49.5)
	isolation from society	17(3.6)
	isolation from family	3(.6)
	etc.	8(1.7)
Starting age to plan for the old age	30s	157(32.9)
	40s	189(39.5)
	50s	86(18.0)
	60s	20(4.2)
Caregiver in the old age	for him/herself	347(73.8)
	adult child or other family members	35(7.3)
	government	88(18.4)
Willingness to depend on adult children	prefer living with adult children	12(2.6)
	prefer living alone	300(64.1)
	prefer living alone but receiving care from adult children	79(16.9)
	N/A	77(16.5)
Financing the old age	for him/herself	309(66.5)
	adult child or other family members	6(1.3)
	social security	150(32.3)

2. 노후준비정도 및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노후준비정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30,40,50대 성인남녀의 노후준비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정도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등 노후준비의 개별 영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전체적인 노후준비정도의 평균은 3.33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후준비정도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했을 때, 응답자 평균이 척도 상 '보통이다'와 '조금 그렇다'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포시에 거주하는 30,40,50대 성인들은 노후준비를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보통이상의 노후준비정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노후준비정도를 노후준비의 각 영역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노후준비 영역 모두 중간 이상의 준비정도를 보였다. 특히 세 가지 노후준비 영역 중에서 사회적 노후준비영역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노후준비영역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이것은 아직 성인세대는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신체적 노화를 감지하기 이른 나이이기 때문에 신체적 준비도가 낮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인세대가 경제적, 신체적 준비 이외에도 사회적 영역의 노후준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조

Table 3. Distribution of the planning scores for the old age

	M(Range:1-5)	S.D.
Economy	3.33	.75
Social	3.48	.77
Health	3.18	.73
Total	3.33	.60

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영역이 다양하게 걸쳐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후준비의 세 가지 하위 영역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영역별로 노후준비정도가 적극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노후준비정도가 적극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구분은 응답자의 응답분포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을 4분위로 나누어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적극적 집단'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소극적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분석에서 기준집단은 노후준비정도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집단, 즉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로짓분석 결과,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노후준비 영역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노후준비영역의 경우 연령과 경제상태, 그리고 부모역할수행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경제적 노후준비를 보다 많이 하는 집단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소극적인 집단에 비하여 연령이 많고, 경제상태가 좋으며, 부모역할수행을 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김성희 1996; 송명숙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노후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부모역할수행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즉, 사회적 차원의 노후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부모역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속할 확률이 높았다.

Table 4.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inancing planning for the old age

	Odds Ratio	Std. Err.
Sex	1.352	.380
Age	1.566*	.306
Education	1.023	.224
Economy	2.024***	.329
Health	1.102	.181
Willingness to depend on adult children	.805	.244
Caring to parents	1.071	.083
Parent role	1.232**	.076
Marital satisfaction	1.022	.012

1. *p<.05 **p<.01 ***p<.001
2. Log likelihood=-.186.73919 LR $Chi^2(9)$=50.42 Prob>Chi^2=0.0000
3. Sex: male=0 female=1
4. Willingness to depend on adult children : receiving care from adult children=0, by oneself=1

Table 5.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ocial planning for the old age

	Odds Ratio	Std. Err.
Sex	1.620	.433
Age	1.411	.259
Education	1.687*	.380
Economy	1.125	.165
Health	1.284	.200
Willingness to depend on adult children	.939	.268
Caring to parents	1.123	.087
Parent role	1.160*	.066
Marital satisfaction	1.017	.011

1. *p<.05 **p<.01 ***p<.001
2. Log likelihood=-207.18896 LR $Chi^2(9)$=36.66 Prob>Chi^2=0.0000
3. Sex: male=0 female=1
4. Willingness to depend on adult children : receiving care from adult children=0, by oneself=1

셋째, 신체적 노후준비영역의 경우, 연령과 부모역할수행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다시 말해서, 신체적 노후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신체적 노후준비에 소극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연령이 많고, 부모역할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체적 준비정도가 높은 것은 선행연구(배계희 1988)의 결과와도 일치를 하는 결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Table 6. Factors contributing to the health care planning for the old age

	Odds Ratio	Std. Err.
Sex	2.111	.623
Age	2.159***	.427
Education	1.099	.235
Economy	1.170	.181
Health	1.259	.210
Willingness to depend on adult children	1.346	.432
Caring to parents	1.136	.094
Parent role	1.225**	.073
Marital satisfaction	1.013	.011

1. *p<.05 **p<.01 ***p<.001
2. Log likelihood=-186.73919 LR $Chi^2(9)$=50.42 Prob>Chi^2=0.0000
3. Sex: male=0 female=1
4. Willingness to depend on adult children : receiving care from adult children=0, by oneself=1

3. 노후준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노후준비유형의 전반적 분포

다음으로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 등 세 가지 차원의 노후준비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노후준비의 다차원적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30,40,50대 성인 기혼남녀의 노후준비행동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행동유형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최근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차원 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 등 다양한 차원들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을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의 노후준비정도에 기초하여 네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네 가지 집단 분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앞서 응답점수분포도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자들을 4분위로 나누어 상위 25%에 해당하는 집단을 노후준비에 적극적 집단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노후준비에 소극적 집단으로 나눈 바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세 가지 차원의 노후준비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을 다시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 등 세 가지 노후준비 영역에서 모두 '적극적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집단 1로 구분하고,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 영역 중 두 가지 영역의 노후준비정도가 높은 사람들을 집단 2로 분류하였다. 또한 집단 3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 영역 중 한 가지 영역만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집단이며, 집단 4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 모두의 노후준비 정도가 낮은 집단을 말한다. 각 집단의 분포는 Table 7에 제시되었다.

Table 7을 보면, 세 가지 노후준비 영역 모두에서 소극적인 준비정도를 보인 집단(집단 4)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의 48.0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30,40,50대 성인 남녀들의 실제 노후준비행동이 적극적이지 않음

Table 7. Distribution of planning behaviors for the old age

	N(%)
Group1	44(10.11)
Group2	62(14.25)
Group3	120(27.59)
Group4	209(48.05)
total	435(100)

을 반영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세 가지 노후준비 영역 중 한 가지 영역 이상을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집단(집단 1, 집단 2, 집단 3) 중에서는 한 가지 영역의 노후준비만을 하는 집단(집단 3)의 비율이 2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노후준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세 가지 노후준비영역을 골고루 잘 준비하는 집단(집단 1), 세 가지 노후준비 영역 중 두 가지 영역을 준비하는 집단(집단 2), 세 가지 노후준비 영역 중 한 가지 영역만을 준비하는 집단(집단 3),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노후준비 정도가 저조한 집단(집단 4) 등 네 가지 노후준비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기준집단은 세 가지 노후영역 모두에서 준비정도가 미약한 집단(집단 4)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Table 8),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여러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관련 특성의 경우 부모역할수행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개인 특성으로서 연령과 가족특성으로서 부모역할수행만족도 요인이 모든 노후준비유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를 각 집단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노후 영역 모두를 골고루 잘 준비하고 있는 집단(집단 1)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노후준비행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이다. 분석 결과, 기준 집단인 세 가지 노후영역 모두에서 준비정도가 미약한 집단(집단 4)에 비해 연령이 높고, 가족의 경제상태가 좋으며, 자신이 수행하는 부모로서의 역할행동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집단 1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세 가지 노후 영역 중 두 가지 영역을

Table 8. Factors contributing to four types of planning behaviors

	Group 1		Group 2		Group 3	
	RRR	Std.Err	RRR	Std.Err	RRR	Std.Err
Sex	2.209	1.067	2.924**	1.185	1.165	.341
Age	2.271*	.740	2.352**	.634	1.661*	.353
Education	.901	.324	2.923**	1.094	1.188	.291
Economy	3.045***	.910	1.101	.229	1.411*	.237
Health	1.349	.377	1.461	.329	1.098	.193
Willingness to depend on adult children	.891	.439	1.053	.437	1.360	.458
Caring to parents	1.061	.138	1.310*	.153	1.103	.090
Parent role	1.337**	.140	1.334**	.115	1.154*	.074
Marital satisfaction	1.037	.021	1.018	.015	1.018	.012

· Comparison group is Group 4.
· *p<0.05 **p<0.01 ***p<0.001
· Log likelihood=-372.3658 LR $Chi^2(9)$=103.17 Prob>Chi^2=0.0000, N=347
· Sex: male=0 female=1
· Willingness to depend on adult children
· Receiving care from adult children=0, by oneself=1
· RRR(Relative Risk Ratio)

잘 준비하고 있는 집단(집단 2)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 가지 노후영역 모두에서 준비정도가 미약한 집단(집단 4)에 비해 여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집단 2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의 양이 많고 부모역할 수행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세 가지 노후 영역 중 한 가지 영역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집단(집단 3)은 기준집단인 세 가지 노후영역 모두에서 준비정도가 미약한 집단(집단 4)과 비교해 볼 때, 연령이 높고 경제상태가 좋으며 부모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 보면,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집단 1, 집단 2, 집단 3)에 속한 사람들을 세 가지 노후 영역을 모두 준비하지 않는 집단(집단 4)과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연령, 경제상태, 교육수준 등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이들 집단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노후준비를 위해서 사회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의 현실적 여건이 노후준비정도와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가족관련 요인의 경우 부모역할수행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대상자 개인의 노부모에 대한 지원 경험이나 자신의 노후부양책임관, 혹은 부부간 관계의 질과 무관하게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열심히 하였는가의 여부가 노후준비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성인세대가 노후준비를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서 부모로서 노년기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30,40,50대 기혼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실태 및 노후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밝히는데 있다. 특히 성공적 노후를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 등 세 가지 영역에서의 준비를 다차원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노후준비양상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노후준비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적 특성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준비의 주체 역시 개인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가족과 자녀에게 노후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노후준비의 시작 연령 역시 성인기 초반인 30대 혹은 4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 영역 중 사회적 차원의 노후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신체적 노후준비정도가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자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 신체적 측면을 강조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준비행동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노년기 이전세대들은 노후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성인세대는 노년기 이전에 미리 신체적 준비를 해야 할 만큼 아직까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노후준비의 세 가지 하위영역인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노후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하위영역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적 영역의 경우 경제상태와 연령이, 사회적 영역의 경우 교육수준이, 그리고 신체적 영역의 경우 연령이 중요한 변수이었다. 가족특성의 경우 '부모역할수행' 요인이 세 가지 노후준비영역에서 일관적으로 중요한 변수였으며, 이외의 다른 가족요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노후준비의 세 가지 하위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행동 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을 네 집단(세 영역의 준비정도가 모두 높은 집단, 세 영역 중 두 가지 영역의 준비정도가 높은 집단, 세 영역 중 한 가지 영역의 준비정도가 높은 집단, 세 영역의 준비정도가 모두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 때 세 영역의 준비정도가 모두 낮은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세 영역 중 한 가지 영역에서의 노후준비정도가 높은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 이전의 30,40,50대 성인들이 노후를 미리 챙기는 경향이 미약하며,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노후생활영역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조사대상자들이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인식수준과 실제 준비행동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노후준비행동의 다양한 유형을 조성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라도 노후준비를 수행하는 집단들이 세 영역 모두에서 노후준비정도가 낮은 집단과 구분되는데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차이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연령, 경제상태, 교육수준 등 개인의 현실적 조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앞서 노후준비의 개별적 영역에서 관련요인을 살필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측면이 노후준비행동패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특성요인 중에서는 앞서 개별 영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역할수행정도'가 노후준비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노후준비인식은 매우 높지만 실제로 노후준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높은 인식정도만큼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노후준비에 있어서 노년기 이전 세대인 30,40,50대 성인들의 인식과 행동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정도는 이들의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노후준비의 인식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노후준비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결국 노년기 이전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양상을 해석하는데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 노후준비정도에 미치는 '부모역할수행'의 효과이다. 분석 결과, 흥미롭게도 '부모역할수행' 요인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지원경험, 부부관계 등 다른 어떤 가족특성보다도 노후준비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자식이 '노후보험'이 아니라는 인식이 성인세대에게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는 것, 즉 미래의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모로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년기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예전에는 부모의 노후대책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의 영역이었다면, 최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후준비는 거꾸로 자식을 위한 부모의 도리의 영역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책임감은 성인세대가 미래 노년기를 준비하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의 노인세대인 30,40,50대 성인들의 효과적 노후준비를 위하여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성공적 노년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노인세대 만큼이나 노년기 이전세대들에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준비교육이 노인세대를 넘어 노년기 이전세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관련 후속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직까지 노후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준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년기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비단 경제적 차원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사회적 활동, 정서적 외로움 극복 등 다양한 생활의 영역에서의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다양한 노년기 삶의 차원을 아우르는 노후준비방법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년기 이전세대에게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준비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앞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더 이상 자녀세대가 노인을 위한 노후보험의 역할을 하던 시대가 끝나고 노후를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가 보호위주의 잔여적·소극적 범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미래 노인세대인 성인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노인정책 수립에 있어서 크게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화를 대비한 노후준비가 계속적으로 강조될 것을 염두에 둘 때, 노인세대를 넘어서 더 넓은 연령대가 노년기 이전부터 미리 노후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자(1998) 중년기발달. 서울: 교문사.

김기태(2004) 장년층 노후준비 태도에 관한 연구. 호서대 석사논문.

김두섭·박경숙·이세용(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89.

김미경(1992)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 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45-57.

김성희(1996)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김윤정·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4, 197-213.

김인숙(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노인철(2004) 은퇴이후 노년소득보장,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연금포럼 봄호, 35-43.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서 전·박혜인(1992) 중년기 가족의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18, 143-166.

성말순(2005)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송경숙(1991) 노인의 부양실태와 피부양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송명숙(2002) 중,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대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송석전(2004) 중, 장년층의 노후준비의식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신은식(2002) 독신미혼여성의 노후관련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양순미·홍숙자(200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41-149.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이은경(2002) 중년기 부부의 가족주의가치관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동부산대학 논문집 21, 715-744.

이인수(2002)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이행숙(1996) 주부의 노후생활준비의식, 행동 및 경제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석사논문.

임춘식(2001) 고령화 사회의 도전. 서울: 나남출판.

임희정(2003) 중년층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와의 관계. 연세대 석사논문.

장경섭(2001)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신세대'로서의 노인. 가족과 문화 13(1), 1-29.

장민자(2003) 청장년층의 노후생활대책에 대한 의식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장인협 · 최성재(1996)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 출판부.
전진우(2002) 중년층의 노후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조선일보, 2005년 9월 12일자
차승은 · 한경혜(2003) 직업, 가족, 그리고 중년기 신체적 건강. 가족과 문화 15(2), 33-60.
최성재(1992)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12(2), 1-22.
최신덕 · 김모란역(1998) 노년사회학. 서울: 하나의학사.
최은정(2004) 농촌노인들의 노후준비실태와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서대 석사논문.
최점수(1995) 직장인의 노후생활 준비의식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최혜경 · 김유경 역(2001) 성공적 노화. 서울: 신정.
최혜지 · 이영분(2005) 사회 · 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415-435.
통계청(2002) 한국의 사회지표.
홍숙자(1999) 중년기 여성의 노후설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Clark RL, Splengler JJ(1980). The economics of individual and population ag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utney NM, Bengtson VL(2001) Familie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kinkeeping In M. E. Lachman (ed.).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Inc.